



1979

1983

1997

2003

그리고



철.학.서.적. 출.판.은.  
계.속.된.다.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 2동. 동부시립병원을 끼고 골목길로 접어들면 포도넝쿨 뺨은 소담한 단독주택 한 채를 만날 수 있다. 옛집을 만난 듯 고즈넉한 기운에 멈춰서는 걸음이 한 번, 철제대문 위 '서광사' 간판을 보고 멈춰서는 걸음이 다시 한 번이다. 낯선 이도 두 번쯤 걸음을 멈춰서는 곳이 바로 서광사다.

서광사는 1974년 11월 1일, 김신혁 대표가 삼화인쇄를 퇴사하고 세운 출판사다. 가톨릭신학대학을 졸업한 이력만큼 철학에 관심이 많았던 김 대표는 서광사 설립부터 철학서적 출판의 외길을 생각했다. 리프린트 서적 출판을 중단, 서광사의 첫 책으로 꼽을 수 있는 《사회정의론》을 출간한 때는 1979년, 포도넝쿨 뺨은 현재의 소담한 단독주택으로 사무실을 이전한 해기도 하다.

서광사는 김신혁 대표와 그의 부인 이숙 부사장, 그리고 아들 김찬우 영업 부장이 주축이 되어 살림을 꾸려간다. 가족경영이 두드러지는 출판계의 특징을 말했다더니, 이숙 씨는 그것과는 사뭇 다른 사정이라며 고개를 가로 젓는다. "1999년 2월의 일입니다. 과주 북시티 창립멤버로 열화당 이기웅 대표와 건축 기행을 다녀온 사장님이 갑작스레 쓰러지셨어요. 간병인의 도움으로 오늘 어렵

게 걸음하셨지만, 당시 사장님 건강상태로는 출판사 경영을 생각하는 건 욕심이었습니다. 사장님이 애정으로 지켜 온 출판사임을 잘 알기에 부족하나마 제가 직접 나서게 되었죠. 유학준비를 마쳐놓고 경영 감각을 익히려 잠시 회사에 적을 두었던 아들도 제 뜻에 기꺼이 동참해 주었구요. 사장님은 가족과 친척은 출판사 경영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고집하신 분이었습니다."

설립 이후 30여 년간 철학서적을 고집해온 서광사의 면모는 출판기획을 통해서도 잘 드러난다. 서광사 최대사업으로 기획된 '헬리스 고전 출판'의 첫 권으로 박종현 역주 플라톤의 《국가·政體》가 1997년 출간되었는데, 이 기획은 지난 1983년에 마련된 것이었다. 출판사의 능장이라 생각하면 어불성

설, '그 말은 내게 그리스어다'는 비유가 있을 만큼 어렵다는 그리스 원전을 한국어로 옮기고, 국내에서 다이제스트로 몇 부분만 발췌, 소개되었던 플라톤의 《국가》를 온전히 한 권으로 담아내기 위한 고집스런 기다림이었다.

“플라톤의 《국가·政體》를 번역한 성균관대 철학과 명예교수 박종현 씨가 이 책의 번역을 통해 2003년 인촌상 학술부문을 수상했습니다. 서광사 식구 모두가 제 일처럼 기뻐했지요. 전 숭실대 총장 조요한 씨는 플라톤의 《국가·政體》를 말하며 ‘일본에서 출간된 두 종의 《국가》 번역보다 훨씬 낫다’고 평가기도 했습니다.”

서광사는 '사랑과 지혜가 담긴 동화', '세상의 빛깔들'이란 주제 아래 아동도서도 부지런히 선보인다. 철학전문 출판사 아동도서답게 그 역시 아동철학서를 전문으로 하고 있다. 아동도서 중 서광사가 특별하게 생각하는 책은 청소년을 위한 철학 만화로 기획된 '만화로 읽는 철학 시리즈'. 청소년 철학입문서 《너 자신을 알라》를 1997년 첫 권으로 출간했으며, 이후 한 해에 한 권씩 꾸준히 선보이고 있다. 철학전문도서와 아동철학도서에 이르기까지 1997년은 서광사에 있어 철학서적 전문출판사의 면모를 유감없이 드러낸 시기다.

“잘 팔리고 잘 읽히는 책을 만들고 싶은 생각이야 물론 크지요. 그러나 한국 철학에 보탬이 되어 온 서광사의 자존심과 자부심을 오래도록 지켜가고 싶습니다. 국내 대학의 철학도가 두문불출 없애고 교양철학만이 간신히 명맥을 잇고 있는데 철학서적 전문출판사로서 이런 시류가 아쉽습니다.”

서광사의 발자취를 쫓아가다보면 흥미로운 이정표를 여럿 만나게 된다. 1998년 노조원 4명으로 노조를 설립시켜 출판계 10대 뉴스로 소개되는가 하면, 거슬러 1986년에는 국내에 개념조차 없던 주5일제 근무를 실시해 이목을 끌었다. 1992년에는 저자와 역자의 동의서를 받아 인세 후불제를 실현했으며, 1996년에는 한국출판유통(현 북센)을 통해 모든 책들을 일원화 공급, 유통면에서도 선진화를 추구했다. 투명경영, 정도경영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사례인데, 불시에 찾아든 세무조사에서 조사원들이 단 한 건의 탈세건도 찾아내지 못하고 황망히 자리를 뜬 춘극도 있었다고 한다.

서광사에는 출판시스템 원칙이 있

다. 서광사에서 한 권의 책을 출간하는 데는 원고가 들어온 후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이 소요된다. 한 달 안에 딱딱 책을 만들어내는 타출판사에 비하면 분명 느린 셈이다. 그렇지만 더 좋은 기획, 더 좋은 책을 위해서는 '느림의 철학'도 분명 필요하다. 서광사와 계약을 맺은 저자와 역자들은 '응당 서광사니까'라고 암묵적인 동의를 한다.

서광사에서 곧 선보일 책들은 김철운 씨의 《순자와 인문세계》, 강영계 씨의 《청소년을 위한 철학 이야기》, 대륙동화 시리즈 《아시아편》과 《유럽편》, 프랑스 미학에 대한 질문과 답으로 엮인 《동시대의 미학》 등이 있다. 가장 먼저 독자를 만날 책은 《순자와 인문세계》와 《청소년을 위한 철학 이야기》. 나머지 언급된 책들은 서광사 '느림의 철학'에 기대어 3개월에서 6개월 후에 독자와 만날 수 있다. 곧 선보일 책이라 하고서 6개월이면 너무 하지 않느냐는 토로는 어쩔 수 없다. 기자 역시 암묵적으로 '응당 서광사니까' 동의했기 때문이다.

“좋은 책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 주시고, 너적지 않은 인세에도 양서를 위해 노력해주시는 저자분과 역자분에게 늘 고마움을 갖고 있습니다. 서광사가 어느 책 한 권 소홀히 작업하지 않는 까닭도 그분들의 마음을 닮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30년 철학서적 전문출판사로 명맥을 이어온 것 역시 그분들의 공입니다.”

철학출판의 명가 서광사도 해결해야 할 숙제가 있다. 철학전문서적 1,000권을 갖추겠다는 김 대표의 뜻이 아직 실현되지 않은 것. 2003년 현재 524권을 출간했으니 476권이 남은 셈인데, 1년에 스무 권 남짓 출간한다는 서광사의 말을 빌리면 앞으로 20년 이상 출판사 살림을 잘 꾸려야 한다. 느긋하고도 바지런히 걷는 걸음이니 지칠 일은 없음이요, 모쪼록 김 대표가 쾌차해 서광사라는 이름만큼이나 아름다운 빛으로서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

취재 박용두 기자 · 사진 박신우 기자

